

“배구, 광주 스포츠 브랜드로 만들고 여자 프로팀 창단”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취임 앞둔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전갑수(60) 광주시배구협회장이 최근 제7대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광주시배구협회장은 올해 단독 출마해 연임하게 됐고, 대한장애인 배구협회장은 경선을 거쳐 수장에 올랐다. 배구 선수 출신 스포츠 행정가로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석패했지만, 그에 대한 체육인들의 기대와 지지는 두텁고 폭넓었다.

그가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에 나선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가 이끌고 있는 ‘백양실업’은 대표적인 장애인 고용기업으로, 장애인 17명을 직원으로 두고 있다.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제3·4대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을 맡았을 때 부회장으로 활동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오래 전 지인의 초청으로 광주에서 열리는 장애인작업배구를 관전했어요.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비장애인을 능가하는 그들의 열정과 배구 스킬을 보고 나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요. 비장애인 배구밖에 몰랐던 저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계기가 됐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반성하게 됐지요. 이들의 모습에서 내가 힘들다고

선수 출신 스포츠 행정가 신망 두터워
운영하는 기업도 장애인 17명 고용

지적장애인 실업팀 만들고 대회 신설
세계 장애인선수권 공동 개최 모색도

한국전력 배구단 유치 지속 추진
두 종목 맡아 일 늘었지만 행복해

느낀 일들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이들이 맡겨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고 그때 결심했죠.

전 회장은 자신의 배구철학을 실천할 절호의 기회를 십분 살려나갈 계획이다. 회장으로서 첫 사업은 지적장애인 배구를 전국 장애인체전 정식 종목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는 수첩 첫 머리에 ‘회장배 지적장애인배구대회 신설, 실업팀 창단’라고 써놓았다. 이런 구상에는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바탕으로



로 삶에서 보람과 활력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전국 장애인학교에 지적장애인 배구팀이 15개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너무 협소합니다. 이들이 마음껏 운동하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실업팀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이들이 성장하면 현재 아시아 4~5위권, 세계 18위~20위권인 한국장애인 배구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회장 임기 동안 세계 주요 대회에서 메달권에 진입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전 회장은 ‘배구를 광주의 스포츠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초·중·고, 대학, 실업, 프로팀이라는 연계 육성 시스템을 보유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한국전력 배구단 연고지 광주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를 대구와 공동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 국내 유치 도시로 확정된 대구에 제안해 광주와 대회를 나눠 치르는 것이다. ‘달빛동맹’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양 도시간 우의를 다지고 스포츠를 통해 이를 한층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수 육성과 저변을 넓히기 위해 초등학교 남녀팀을 창단할 계획입니다. 임기 내에 한전 배구팀 연고지 이전을 비롯해 여자 프로배구팀도 창단할 것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광주는 명실상부하게 남녀 프로 배구팀을 보유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

입니다. 인기 종목인 남녀 프로 배구팀이 광주에 있다면 스포츠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인지도 상승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호남권은 물론 경상도 팬들까지 광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지역민에게는 실재 스포츠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외지인들에게는 프로배구팀이 광주를 찾게되는 매력 포인트가 되는거지요.”

전갑수 회장이 광주배구협회장과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다고 말한다. 스포츠 행정가로서 배구인들과 장애인들에게 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수 출신으로 1988년까지 지도자 생활을 한 뒤 사업을 시작하면서 20여년 동안 현장을 떠나 있었지만, 다시 스포츠행정가로 복귀한 이유이기도 하다.

“두 종목 단체장을 맡아도 자신 있는 이유는 배구라는 공통분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종목이지요. 일의 흐름과 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다만 업무량이 조금 더 늘었다는 것 뿐이지요. 제가 집중하는 부문은 임기 내에 목표를 달성하는 일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배구인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광주 배구, 장애인 배구를 탄탄한 기반에 올려놓는 것이지요.”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 52명 선정

지적축구·여자배구 2개 종목도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전문체육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우수선수지원사업 및 장애인 체육인재 육성사업 대상자(선수·지도자) 52명과 단체종목 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는 매년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고득점자를 대상으로 우수선수 지원사업과 장애인 체육인재 육성사업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올해 우수선수로는 박광혁(역도) 등 30명과 지적축구·여자배구 등이 선발됐다. 장애인체육인재는 이동주(육상) 등 22명이 뽑혔다.

이들은 등급별로 최고 150만원부터 최저 30만원까지 훈련비를 받는다.

장애인체육회가 선발한 우수선수 등은 2019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광주가 획득한 종합점수 9만7233점 가운데 4만5188점을 획득(47%), 광주가 종합 8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 열릴 예정이던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순연됨에 따라 전문체육위원회는 작년 대상자를 올해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배드민턴 안세영 세계랭킹 8위로 상승

배드민턴 여자단식 안세영(삼성생명)이 세계랭킹 8위로 1계단 올라섰다.

안세영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지난 2일자로 발표한 세계랭킹에서 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3월 17일자 랭킹에서 9위를 차지했던 안세영은 순위를 1계단 끌어올렸다.

BWF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대회가 줄줄이 취소·연기되면서 지난해 3월 17일 발표한 세계랭킹을 동결했다.

이후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3주 동안 요넥스 태국오픈, 토요타 태국오픈, 월드 투어 파이널 대회를 연달아 개최한 결과를 반영해 11개월 만에 새 세계랭킹을 발표했다. 안세영은 최근 3개 대회에서 모두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복식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은 세계랭킹 6위에서 5위로 1계단 상승했다.

장예나(김천시청)~김혜린(인천국제공항)은 여자복식 9위를 차지했고, 국가대표 선발전 부정선발 의혹을 제기한 정경은(김천시청)은 백하나(MG새마을금고)와 함께 세계랭킹 10위에서 11위로 내려갔다.

남자복식 최술규(요넥스)~서승재(삼성전기)는 세계랭킹 8위를 유지했다.

혼합복식 서승재·채유정(인천국제공항)은 세계랭킹 6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안세영

맷트레이드 되자마자 맞대결?



김시래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라는 진부한 표현이 프로농구 코트에서 실제 벌어지게 생겼다.

4일 ‘대형 트레이드’에 합의한 프로농구 서울 삼성과 창원 LG가 6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곧바로 맞대결하기 때문이다.

이번 트레이드로 LG가 김시래(32)와 테리코 화이트(31)를 삼성으로 보내고, 삼성 이관희(33)와 케네디 믹스(26)가 LG 유니폼을 입게 됐

프로농구 삼성-LG 내일 격돌
김시래-이관희 유니폼 바꿔입고
서로 진정팀 상대 출전 가능성

다.

신인 시절인 2012~2013시즌만 울산 현대모비스에서 뛰었고, 이후 2013~2014시즌부터 줄곧 LG의 간판선수로 활약한 김시래와 2011~2012시즌부터 계속 삼성에만 몸담은 이관희가 소속을 맞바꾼다는 사실에 농구 팬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현재 6위 인천 전자랜드에 2경기 차 7위인 삼성으로서는 김시래와 화이트를 데려와 공격력을 보강, 남은 5~6라운드에서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려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트레이드다.

또 LG는 6경기 차이가 나는 6위를 남은 18경기에서 따라붙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다음 시즌 이후를 내다본 거래로 볼 수 있다. ‘대어급’ 자유계약선수(FA) 영입 등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트레이드가 발표된 지 불과 이틀만인 6일 삼성과 LG의 맞대결에서 김시래와 이관희가 곧바로 ‘진정팀’을 상대하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김시래로서는 2013년 4월 현대모비스에서 LG로 트레이드된 이후 줄곧 ‘안방’으로 사용한 창원체육관을 원정팀 선수 자격으로 방문하게 되고, 이관희는 불과 며칠 전까지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함께 사력을 다했던 옛 동료 선수들을 상



이관희

대로 ‘고춧가루’를 뿌려야 하는 입장이 됐다.

김시래는 LG 소속으로 마지막 경기를 치른 3일 고양 오리온전에서 22점, 12어시스트로 필필 날았고, 이관희 역시 1월 31일 오리온을 상대로 15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진부할 정도로 자주 쓰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연합뉴스

바둑 신민준, 커제 꺾고 LG배 우승...생애 첫 메이저 제패

‘한국 바둑의 미래’ 신민준(22·사진) 9단이 중국 랭킹 1위 커제(24) 9단을 물리치고 생애 첫 메이저 세계대회 정상에 올랐다.

한국랭킹 4위인 신민준은 4일 서울 한국기원과 중국 베이징 중국기원에서 온라인으로 펼쳐진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3번기 제3국에서 커제 9단과 302수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백 3집반승을 거뒀다.

이로써 1국을 패한 뒤 2, 3국을 내리 승리한 신민준은 짜릿한 뒤집기로 메이저 세계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과 중국 기사가 맞붙은 메이저 세계대회 결승전에서 한국이 승리한 것은 2014년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에서 김지석 9단이 탕웨이싱 9단을 꺾은 이후 6년여 만이다.

신민준은 또 한국 기사로는 통산 15번째 메이저



세계대회 챔피언이 됐다.

2012년 제1회 영재입단 대회를 통해 신진서와 함께 입단한 신민준은 8년 2개월여 만에 세계 무대 정상에 올랐다. 그는 2016년과 2018년 메지온배 신인왕전, 2019년 국내 속기전인 제37기 KBS 바둑왕전과 제6회 글로벌스배 세계바둑 U-20 등 우승한 적이 있지만 메이저 세계대회는 결승에 오른 것도 처음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충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죽게 놔두지 않는다!!

내가 있는 한 그 누구도

1월 27일 대개봉!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2관	소울
3관	세자매,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
4관	소울,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확여행
5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6관	소울
9관	애니스트 씨프, 해피 투게더 세상의 모든 디지털: 러브 사라
7관 씨네마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확여행
8관 씨네마	소울, 복스마트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 살롱콘서트 #1

일시 : 2021. 02. 06.(토) 14: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2-8716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페라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